

게임업계, 콘솔·모바일 축 '수익성 중심' 재편

대형 프로젝트 개발비용 등 급증 성장보다 자본 회수 가능성 우선
폴란드, '콘솔·AAA' 전략 거점
튀르키예, 모바일 포트폴리오 확장

성장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자본 재편 흐름 속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폴란드와 튀르키예를 콘솔·모바일 전략 거점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게임 산업의 투자 문법이 달라지고 있다. 성장 스토리에 무게를 두던 자본이 최근에는 '수익성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이 급증하면서, 제작 효율과 리스크 분산 구조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임 산업은 구조적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크다. AAA급 콘솔·PC 프로젝트는 수백억 원대 개발비가 투입되고, 출시 직전 글로벌 마케팅 비용이 집중된다. 플랫폼 수수료, 현지화, 서버 인프라, 광고 집행 비용까지 감안하면 출시 전 현금 소모가 급격히 늘어난다. 최근 투자 시장이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자본은 성장 가능성보다 회수 가능성을 우선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폴란드와 튀르키예가 서로 다른 전략적 의미로 재조명되고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폴란드 터키 국기 이미지.

있다.

폴란드는 콘솔·PC 기반 AAA 제작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는다. 폴란드의 비디오게임 개발사인 체데 프로젝트(CDProjekt)를 통해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고, 연구개발(R&D) 기반 IP 수익에 저울 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와 세액 공제 정책으로 제작 유인을 제공한다. 콘솔·PC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역시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폴란드 게임산업 현황' 보고서도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폴란드가 콘솔 중심 제작 구조와 세계 지원을 기반으로 유럽 내

전략적 제작 허브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된 글로벌 자본 흐름과 맞물린 구조적 변화로 해석한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는 크래프톤이다. 크래프톤은 2021년 폴란드 개발사 피플 캔 플레이 지분을 인수하며 글로벌 콘솔·PC 제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는 단기적 확장이 아니라 장기 AAA 파이프라인 확보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를 최근의 '동유럽 러시'로 보기도, 수년 전부터 제작 거점을 염두에 둔 선제적 판단으로 본다.

튀르키예는 또 다른 축이다. 모바일·캐주얼 게임 중심 제작 허브로 성장했다. 2020년 미국 게임사 징가(Zynga)

가 튀르키예 피크게임스(Peak Games)를 약 18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현지 모바일 게임 산업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모바일 중심 개발 구조와 상대적으로 유연한 비용 체계는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 강점으로 평가된다.

폴란드가 콘솔·AAA 전략의 거점이 라면, 튀르키예는 모바일 포트폴리오 확장의 접점으로 기능한다. 콘솔과 모바일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국내 게임사 입장에서는 양국이 서로 다른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이제는 성장 스토리만으로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다"며 "제작비와 마케팅비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자도 하고 투자도 받는 네트워크형 구조가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전했다.

결국 변화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자본 구조다. 성장 중심에서 수익 중심으로 이동한 투자 환경 속에서, 국내 게임사들은 폴란드와 튀르키예를 통해 콘솔과 모바일 양축 전략을 재정비하고 리스크를 분산한다.

'투자만이 살길'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다만 그 투자는 외형 확장이 아니라,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적 재편에 가깝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 AI-RAN 실증 성공

SK텔레콤이 국내외 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AI)과 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차세대 기지국 기술 'AI-RAN'을 개발하고, 실증망에서 시연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AI-RAN은 하나의 장비에서 통신 기능과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차세대 기지국 기술이다. 통신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AI 서비스를 병행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실증에는 노키아와 국내 통신장비 기업 HFR이 참여했다. 엔비디아 GPU 기반 범용 서버를 활용해 다양한 AI-RAN 장비 구조를 개발·검증했으며, GPU가 처리하는 통신 기능 범위에 따라 여러 형태의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노키아와는 AI 서비스를 처리하는 GPU와 통신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통신 전용 가속기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해 실외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했다.

/김서현 기자 seoh@

KT MWC26서 '민:음K' 개발과정·성과 소개

KT가 'MWC26' KT 부스에서 자체 개발한 AI 모델 '민:음K(Mi:dmK)'의 개발 과정과 기술 성과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AI 평가 지표를 통해 검증된 성능과 한국 기업 환경에 특화된 독자 AI 전략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KT는 국내 기업과 공공 환경에서 실제 업무와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AI 모델 구현을 목표로 민:음K 개발을 추진해왔다. 통신·미디어·금융·공공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대규모 고객 접점 경험을 바탕으로, AI가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핵심 업무에 활용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면서도 기업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서현 기자

LG U+ 알파키·U+SASE 등 차세대 보안 기술 공개

LG유플러스가 'MWC26'에서 AI 확산과 함께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보안 기술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AI 기반 분석과 암호 기술 고도화, 미래 위협 대응을 아우르는 보안 기술을 통해 통신 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에서 고객별 AI 이상 감지를 적용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계정 관리 솔루션 '알파키', AI 통화애에 적용 예정인 동형암호 기술,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한 광전송장비, 생성형 AI 환경에 대응한 차세대 보안 플랫폼 'U+SASE'를 선보인다. 이들 기술은 침해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김서현 기자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설 수 있는 무기 ‘영덩이의 힘’”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울대 전기학위 수여식 축하
급변·경쟁 속 '집요한 성실함' 강조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돌파할 힘으로 '영덩이의 힘'을 제시했다.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일수록 요란함보다 집요한 성실함이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다.

최수연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제80회 전기 학위 수여식 축하사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영덩이의 힘"이라고 26일 밝혔다.

그가 정의한 영덩이의 힘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남들이 지루해하고 불안해하며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기어이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80회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하하고 있다. /뉴시스

자리를 지키고 앉아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성실함"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세상은 요란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

이지만, 결국 지루함을 견디는 미련한 사람들이 필요"라며 "깊이 몰입하다 보면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IT 산업이 급변하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본질에 대한 몰입과 우직한 끈기가 결국 차이를 만든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2000학번인 그는 2005년 네이버에 입사해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조직에서 근무했다. 이후 연세대와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2년 3월부터 네이버를 이끌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탄탄한 이력처럼 보이지만,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완벽한

설계와 계획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털어놨다. 공대에 입학했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다른 전공을 기웃거렸고, 원하던 직장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네이버 입사 후 첫 부서였던 홍보실에서는 보도자료를 수차례 다시 쓰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도 했다.

그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에 상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기회를 만났다"며 "정해진 트랙이 없다는 건 역설적으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패하는 날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힘만 남겨두라"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증명해 낸 지독한 성실함을 믿어라. 그것이 평생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최빛나 기자

크래프톤, 패러다임 전환기 맞춰 비전·핵심가치 개편

'미지의 영역 개척' 비전 슬로건
빅 프랜차이즈 IP 확보·미래가치 확장
'관점의 전환' 콘셉트로 CI 전면개편

크래프톤이 게임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맞춰 신규 비전과 핵심가치를 전면 개편했다. AI 확산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조직 정렬과 장기 성장 방향을 명확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크래프톤은 26일 사내 소통 프로그램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를 열고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 핵심가치, CI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변화의 시점에서, 한 방향으로의 조직 정렬'이란 주제로 비전을 공개했다. 새 비전은 "우리는 게이머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상상력과 기술로 전 세계 팬들이 잊지 못할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담대하게 도전하고 개척한다"는 내용이다.

비전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은

'미지의 영역 개척'이다. 게임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면서도 새로운 장르와 기술 영역에서 기존의 경계를 넘어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규 비전을 기반으로 크래프톤은 '빅 프랜차이즈 IP' 확보 전략과 AI 기반 미래 가치 확장에 속도를 낸다. 작은 규모의 빠른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검증하고, 경쟁력이 입증된 프로젝트를 스케일업해 대형 프랜차이즈 IP로 육성하는 구조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신사업 기회도 적극 검토한다.

비전 실행을 위한 5가지 핵심가치도 새로 정립했다. ▲ 담대한 목적을 향한 도전 ▲ 철저히 준비된 시도 ▲ 상상력과 기술의 결합 ▲ 팬 중심 사고 ▲ 글로벌 사고와 감각이다.

CI도 전면 개편했다. 새로운 CI 콘셉트는 '관점의 전환(Perspective Shift)'이다. 익숙한 시선을 전환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브랜드 컬러는 레드 계열을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정체성을 강화한다. /최빛나 기자